



연미복신사 펭귄

김 정 만

남서울대공원 진료과장

정부고관이나 외교관, 왕실의 귀족들이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예복이 있다.

그것은 펭귄의 생김새와 모양을 그대로 본뜬 연미복으로서 외교관들이 외국의 대통령, 국왕, 원수들 앞에서 신임인사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연미복의 예복을 입고 알현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흰색 와이셔츠위에 검정색 링크의 고운 겉옷을 입고 백설이 뒤덮인 눈위를 펭귄떼들이 줄지어 행군하는 모습은 마치 외교관들이 흰색 카피트위를 걸어서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과 똑같은 형상이다.

펭귄은 계절에 구애없이 없이 남극의 설산과 빙산들만을 유일한 지상낙원으로 여기며 수천 수만마리가 집단군거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펭귄은 지금으로부터 1천5백년 전만해도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간 새였다. 그러나 남극의 빙산과 설산위에는 먹이가 없어 부득이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수중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러는 동안 날개는 날아다니며 먹이를 취하는 것보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필요한 지느러미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꼬리는 수중 유영시 방향을 잡는 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완전히 후전적으로 형태가 바뀌어버렸다. 현재 생존해있는 각종 펭귄들의 형태는 새의 골격만 갖추었을 뿐 수중 잠수함처럼 새아닌 走鳥의 타조나 에미우처럼 걸어서만 다니는 동물이 되어 버렸다.

살점을 에어내는 듯한 영하 40~50도의 혹한속에 눈보라가 내습하여도 끄덕하지 않고 수천수만마리가 질서정연한 집단군거 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선출

해 낸 리더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그들 무리가 제정한 규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짐승이 바로 펭귄이다. 펭귄은 어릴적부터 탁아소 부모의 엄격한 위탁 생활속에서 자라나 암수간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인 후 한쌍의 부부가 되면 죽을때까지 일부일처제를 지켜 단 한번 외도도 없이 백년을 해로하는 금슬 좋기로 이름난 동물중의 하나이다.

무리속에서 한쌍으로 짝을 짓고 살아가다가 태풍·해일·상어·물범·사람등에 의해 불의에 짝을 잃어도 절대로 재혼하지 않고 무리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탁아소 부모 또는 외적의 침입을 경비해 주는 파수꾼 노릇으로 세월을 보낸다.

펭귄떼가 먹이를 찾아 바닷속으로 물고기 사냥을 나갈 때에는 자기의 새끼들은 아늑하고 적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전부 데리고 온 후 여러마리의 홀로된 암놈의 보모펭귄에게 새끼들을 맡기고 떠난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새끼펭귄들은 일정한 장소내에서 활동함은 물론 단체생활과 탁아소내에서 지켜야 할 일을 하나 하나 교육받게 되며 동료간에 협동심을 발휘하는 일과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냉엄한 보모인 펭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무리가 행동을 통일하도록 피나는 노력과 인내심으로 수없이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새끼펭귄들이 명령만 떨어지면 순응하는 것을 최대의 낙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교육시킨 보람은 남극지방의 평탄치 않은 날씨가 기세를 올릴 때 나타난다.

갑자기 몰아닥치는 진눈개비나 폭우, 폭설, 태풍, 해일, 벼락등을 동반하는 강풍 때문에 놀란 새끼펭



핀데들은 금방이라도 죽을듯이 날뛰며 사방으로 도망치려 들게 된다.

이때에 냉엄한 부모펭귄들은 새끼펭귄들이 도망치거나 날뛰지 못하게 한 후 폭우나 폭설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끼들끼리 몸과 몸통을 비벼대도록 운동을 시키고 서로간에 스크럼을 짜게 해서 두발로 쉬지않고 걷는 운동을 시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

만약 이때에 새끼들이 뽀뽀이 흠어지면 혹한속에 체온이 떨어져 동사하게된다. 이렇게 엄격한 부모펭귄들은 부모펭귄들이 물고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확하게 그들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뚜렷이 분업화된 단체생활속에서도 이곳의 여름철이라고 일컫는 11월만되면 종족번식을 시키기 위해 리더의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모든 무리가 뽀뽀이 흠어져서 온 천지가 핑크의 하니뭍으로 신방을 차리느라 정신들이 없다.

신혼생활의 단꿈은 끝나고 이윽고 암놈 펭귄은 2개의 알을 낳아 수놈에게 인계한 후 스타코라해로 몸소리한다. 구실로 매정하게 암놈들끼리 떼지어 여행을 떠나 버린다.

얼떨결에 사랑하는 암놈으로부터 2개의 알을 인계 받은 수놈은 알이 얼어터질 것을 미리 아는 듯 자기 발등에 2개의 알을 올려놓은 후 허리를 35도 정도를

구부린 자세로 발잔등의 알을 덮은 후 자기몸통의 체온으로 37일동안 품어서 알을 부화시킨다.

이때에 아빠 펭귄은 종족번식의 의무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위해 37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아와 사경을 헤매면서도 집념과 끈기로써 알을 부화시켜낼 만큼 부성애가 지극하다. 평상시 수놈은 매년 11월 이전이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식충이처럼 먹고 영양가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어 피하 지방을 많이 축적해 놓는다.

얇체같은 암놈 펭귄때는 부화되기 1~2일 전에 몸보신을 마치고 돌아온 후 부화된 새끼를 인수한 후 마치 자기가 품어서 부화시킨것처럼 온 몸통을 부리로 훑아주는 간사한 사랑의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과묵하고 마음씨가 어진 아빠펭귄은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지경에 도달해도 암놈에게 새끼를 인계한 후 곧바로 물고기 사냥을 위해 멀리 나가지 않고 새끼와 암놈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경비를 해준다.

돌부처같이 어질고 과묵한 부성애와 기르는 정에 집착하는 모성애가 합쳐진 가운데 새끼펭귄은 부력 무력 자라게 되며 이 탁아소 생활에서 사킨 암수 펭귄은 다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짝을 지은 후 백년을 해로하게 된다.

설산과 빙산, 그리고 망망대해속에서만 살아가는 펭귄때는 일생동안 자연발화의 산불한번 구경하지 못하게 된다. 기껏해야 남극 가까이 접근해와서 고기잡는 어망선의 연기를 보거나 냄새맡는게 고작이고 천적인 동물포획가들이 남극에 등장했을 때 천막이나 기타 장비들로부터 바람타고 흘러나오는 기름 또는 불 연기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그러면 펭귄때는 이를 감지한 후 자기들이 살아갈 곳이 못 된다고 판단 더욱 더 추운 곳으로 전 무리가 이동해 가게 된다.

펭귄의 무리가 아직도 자연상태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집단군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보면 이처럼 불이나 천적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만약 남극에도 인간이 접근해 산다면 펭귄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멸종되고 말 것이다.

펭귄은 보통 자연에서 천수하면 15~20년을 산다고 한다. 